

국보관

목조화불 및 비천

중요문화재

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에 만들어진 이 조각에는 앉아 있는 부처와 2명의 비천(불교 신화에 널리 등장하는 천녀)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 조각의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, 유명한 불상제작자인 운케이(1150~1233년)가 제작을 지휘할 당시에 원래 서금당(西金堂)의 본존인 석가여래상 뒤편 광배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1717년에 서금당을 덮친 화재로부터 조각을 구하기 위해 광배에서 분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.